



신문수



양영순



황미나



김정



방학기



김성환



대한민국 광고에는 신제품이 없다
이강우 지음 | 살림 | 1만원



한 분야에서 30년 정도를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게 어느 분야든 삶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갖게 된다. 그런 연유로 젊은이들의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는 한 번 듣고 흘리게 되지만 연륜과 관록이 있는 베테랑의 이야기라면 소소한 일상에 대한 것이라도 무심히 보아 넘길 수가 없다.

30년 동안 CM 플래너로 일하면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오리 온 초코파이 정', '어보, 아버님 태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등의 광고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이강우. 그가 광고 업계에 종사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 주변의 일들, 광고 실무에서의 노하우 등을 묶어 <대한민국 광고에는 신제품이 없다>를 출간했다.

한 주제 당 10페이지 정도로 소개되는 에피소드와 저자의 단상,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교훈은 그의 광고처럼 '사람 냄새'가 난다. 흔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체서에서 보여 지는 '성공하려면 이런 습관을 가져라, 난 이런 계획을 짜서 움직였다' 하는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광고의 최고 미덕, 정직과 정성

일을 계속 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주위 사람에게서 어떤 태도를 배웠는지를 겸손하게 풀어내고 있다.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사람과 동업 관계를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프로덕션을 경영하려면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또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신뢰를 가져야 한다. 내가 가진 아홉과 상대가 가진 하나가 똑같다는 이상한 수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강우에게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비정한 사업의 세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광고 실무 중 얻은 교훈을 정리한 제3장의 '민어야 넘어 간다', '내가 들어야 남도 듣는다', '마음이 열려야 백배로 힘이 난다' 편은, 다들 알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을 놓칠까봐 실천하지 못하는 미덕의 힘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정직함, 양보, 그리고 탁월위적인 대화 그 것이다. 남보다 앞서야만 하는 비정한 광고의 세계에서, 그가 전하는 처세술과 석세스 스토리는 자못 가슴이 훈훈해지는 종류의 것이다.

물론 '그의 시대'는 어느 정도 낭만적인 에피소드가 통용되는 때였을 수도 있다. 그가 젊었던 70-80년대 사회는 지금처럼 딱 짜인, 출구 없는 미로는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알파한 효율성'과 '겉나는 합리성'만을 10년째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미덕들의 가치를 다시 복원할 때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도 화려함과 명성, 높은 연봉 등을 고려하여 광고 크리에이터를 지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광고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도 모두 품고 있으리라. 그런 사람이 라면 광고업 그 이면의 부분을 알기 위해서, 거기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광고실무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알파한 효율성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 오는 정성이 통한다는 값진 교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김용만(마케팅 컨설턴트)

유쾌한 만화가 뒤엔 깡다구가 꿈틀 꿈틀



18-한국대표 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 1·2
장상용 지음 | 크림스 퍼냄
각권 9천8백 원



고형석

'입지전적'이란 말이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을 치달고 올라온 인물을 일컬을 때 쓴 단어다. 어려운 환경에서 비참함을 뼈 속까지 맛보고, 지독한 가난이 끈질기게 삶을 움아매도 끝끝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말이다.

책 <18-한국대표 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 1·2>은 이처럼 '입지전적'이란 훈장을 달아준 조금도 손색없는 우리시대 내로라하는 '그림쟁이' 18명의 삶을 '글'로 그렸다. 정말로 '짚어지게' 가난했지만, 만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불갑았던 고우영 방학기 이현세 허영만 김수정 고형석 황미나 등 18명의 만화가들이 성공을 쟁취하기까지 험난했던 인생역정을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어려운 시절 오기로 버티면 극복

책은 그래서 이들 만화가들을 '18'이라 부른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가 되기까지, 슬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이들을 지탱해온 원동력이 바로 '18'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책제목 '18'은 더 이상 육체림 들리지 않는다. 세상과 당당히 싸우는 '깡다구'로 다가온다.

잠시 만화를 접고 전자제품 외판원으로 나섰던 '아기공룡 둘리'의 작가 김수정은 책에서 그간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한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이 영혼을 갇아먹었지만, 결코 펜과 종이를 놓지 않았다. 그림수록 그 꿈은 더욱 간절해졌다. '어지간하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지 그려나'는 스승의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림 수는 없었다. 오히려 머릿속은 구상한 캐릭터를 습관처럼 종이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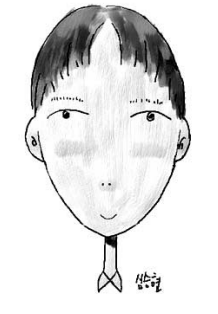
'천원'에 얽힌 김성모의 에피소드는 가슴을 찢절하게 만든다. 1992년 겨울, 부채공장에 취직한 동생 집에 얹혀살면서 사무치게 겪었던 빈곤은 김성모에게 워낙 곱장을 보려는 '승부욕'을 아낌없이 불어넣었다.

동생이 깡빡 있고 천원을 놓고 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니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은행 옆 건물을 떠올렸다. 그곳에 가서 버려진 장조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필터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활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2시간을 내내 울어야 했다.

지겨운 가난은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게 했다. 오랫동안 무명



고우영



심승환

작가로 실컷 고생했던 '오점복통 불청객'의 고행서는 통닭 한 마리만 사다 달라는 딸아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돈을 꾸기 위해 공중전화통을 붙잡아야 했지만, 정작 허름한 바지춤에는 전화통 걸 동전조차 없었다.

또 '3년 내 승부가 안 나면 만화가를 그만둔다'고 했던 '식객'의 허영만도, 만주의 대부호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임꺽정'의 고우영도, 원고를 팔지 못한 채 휴량이 된 버스 바닥에 원고를 싣고 눈물을 흘렸던 '레드문'의 황미나도 극한상황에서 오기로 버티며 꿈을 현실로 바꾸었다.

#남 탓 안 하고 꿈을 현실로

만화가로서의 길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만화밖에 없었다"는 '공포의 외인구단' 작가인 이현세의 경우가 그렇다. 만주 강제이주와 할아버지의 죽음, 6.25전쟁과 '빨갱이' 누명 등으로 점철된 비극의 가족사는 이현세를 당대 최고의 만화가로 키워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잠시 은행에 취직했다가 장부에 그림을 그려 넣어 금방 쫓겨난 일화는 이현세를 천부적인 '그림쟁이'로 만들었다.

또 두 살 무렵 방바닥을 기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왼손이 오리 손처럼 변한 '파페포프 메도리츠'의 심승환은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림에 녹였다. 그러면서 "공정적인 사고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 달했다.

하루 생활비 2천원으로 대학시절을 보낸 '누들누들'의 양영순은 "내가 자리에 없는 날이 실기실이 문 닫는 날"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림에 매진, 그간 다루길 꺼려했던 성(性)분야에 신선한 만화의 장을 열었다. '비빔밥'의 홍승우는 "시행착오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라며 "정체되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새로운 것을 그리게 된다"고 자기자극을 불어넣었다.

지은이는 "그러니까"가 아닌 '그림에도'의 명제로 살라는 만화가 방학기의 말처럼, 이 책의 18명 만화가들은 상황 탓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명제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이 책이 실업과 불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만화가들의 삶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신일숙



이현세



박봉성



허영만



김성환



허성모



김성모



박경정



홍승우

모든 감정을 탁 봐버려라!

울 초조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회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제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종일법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남불 조제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조선일보

지남불 매주 3천여 명이 동참하는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선원장 대법회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매일신문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취두 드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깨달음 ■ 원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바우고 쉬는 공부의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있다는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제 ■ 혜국 스님-커부는 뜻이다 주인의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종 스님-한국인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연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경 스님-난파 개척이란 무엇인가 ■ 백법법문 법장 스님-경허·만공 선사 의 가르침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현재의 책



신국판 / 420쪽 / 차차서 釋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울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 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